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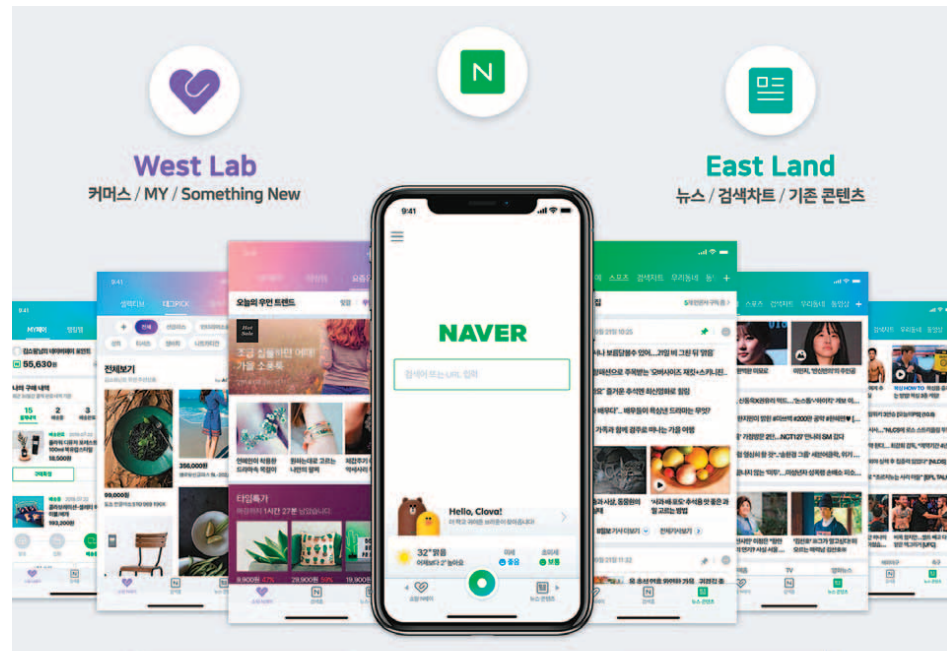
비즈 프리즘 | 네이버 커넥트 2019서 공개한 모바일 개편은?

“검색창만 남기고 다 뺐다”...네이버의 파격 변화

첫 화면, AI기반 검색 버튼 눈길 논란 많던 뉴스판, 오른쪽에 배치 화면 왼쪽에는 새 UI·커머스 시도 11일, 안드로이드 베타버전 출시

네이버의 모바일 첫 화면이 확 바뀐다. 브랜드 로고와 검색창으로 구성된 단순한 디자인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논란을 낳았던 뉴스와 실시간검색검색어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나오도록 했다. 대신 첫 화면 하단에 인공지능(AI) 기반 새 검색 버튼을 배치하고 날씨 등 간단한 생활정보도 제공한다. 새로운 모바일 네이버는 11일부터 안드로이드 베타 버전을 내려받아 이해해 볼 수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파트너 행사 '네이버 커넥트 2019'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바일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첫 화면에는 검색창 '그린윈도



11일부터 바뀌는 네이버 모바일 화면. 검색창과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버튼으로 단순화했다. 뉴스와 실시간검색어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보이는 이스트랜드에 배치하고 반대쪽 웨스트랩에는 커머스처럼 새로운 UI와 기술적 시도가 담긴 콘텐츠를 담았다. 사진제공 | 네이버

우'와 함께 인터랙티브 검색 버튼 '그린닷'만 배치한다. 그린닷은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위치, 보고 있는 정보 등을 파악해 관심사를 연결해주거나 번

역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뉴스나 상품을 보다 더 터치하면 관련 심층 뉴스를 추천해주거나, 더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는 식이다.

그동안 사용자가 많은만큼 정치사회적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뉴스 콘텐츠와 실시간검색어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나오는 뉴스판과 검색차트판에서 제공한다. 뉴스 제공 방식도 언론사가 직접 배열한 기사와 개인화된 AI 추천 뉴스피드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화면을 왼쪽으로 넘기면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가 있는 오른쪽(이스트랜드)과 달리 왼쪽(웨스트랩)에는 다양한 사용자환경(UI)과 기술적 시도가 담긴 커머스같은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한 대표는 "3000만이 매일 찾는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면서 "그린윈도우와 이스트랜드로 익숙함을 유지하면서, 그린닷과 웨스트랩을 통해 과감한 시도와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10일

코스피지수	2228.61	↓	-25.22
코스닥지수	747.50	↓	-19.65
日 닛케이 지수	2만3506.04	↑	+36.65
中 상하이 종합	2725.84	↑	+4.8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6	↓	-0.03
환율 (원·달러)	1134.00	↓	-4.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3391.54	↓	-287.21

SKT 누구, 자동통번역 '지니톡' 탑재

SK텔레콤은 한글과컴퓨터의 자동통번역 솔루션 '발랑발랑 지니톡'을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에 탑재한다. 양사는 10일 이와 관련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누구 이용 고객은 앞으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된 단어나 문장에 대해 자동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AI스피커와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x누구 등 다양한 누구 서비스에 지니톡을 탑재하고 AI 기반 자동통번역 기능 고도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컴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 개발한 자동통번역 솔루션 지니톡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 자동통번역 솔루션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농심그룹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농심그룹이 2018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서류접수 기간은 10일부터 22일까지며 그룹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nongshim.com)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영관리, 마케팅, 해외영업, 국내영업, 생산품질관리, 전기관리 등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다. 채용인원은 100여 명이다. (주)농심외 태경농산, NDS, 농심엔지니어링(경력직) 등 농심그룹 주요 그룹사도 동시에 진행되며, 그룹사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넥타이 풋살족·워킹대디'...新트렌드에 유통업계 '방긋'

'워킹 대디' 등 새로운 층성고객 급증 온라인몰에선 요리·청소 제품 구매 ↑

주 52시간 근무제가 8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 사회 전반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면서 '넥타이 풋살족', '워킹대디', '집안일 하는 4050' 등 새로운 사회현상이 등장해 유통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점 옥상에 마련한 풋살파크에는 요즘 평일 퇴근 후 동료나 동호회와 풋살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홈플러스 풋살파크의 평균 대관시간이 7월 430시간에서 8월 450시간, 9월 470시간으로 계속 늘고 있고, 평균 이용객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인 6월 6130명과 비교하면 9월 7050명으로

3개월 사이에 15% 정도 늘었다.

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 방문하는 '워킹 대디'도 주52시간제가 낳은 새로운 풍경이다. 덕분에 '아빠와 함께하는 트리트니 목욕놀이', '아빠와 함께 빼빼로 만들기' 등의 강좌가 인기다. 이들 넥타이 풋살족과 워킹 대디들은 주 1~3회는 정기적으로 대형마트를 찾아 자연스레 고객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일찍 퇴근해 집안일을 하는 4050 남성이 늘면서 온라인쇼핑몰에는 관련 상품 판매가 늘었다. 티몬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9월까지 3개월 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4050대 남성들의 요리 및 청소용품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

전자레인지와 청소기 매출이 각각 46%,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수강을 하고 있는 남성. 사진제공 | 홈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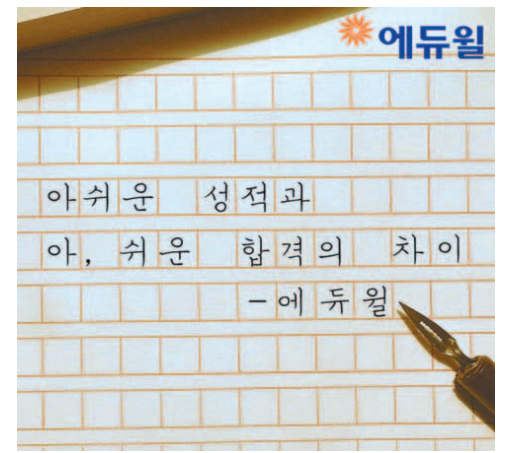
97% 늘었다. 고춧가루, 참기름, 파스타 소스 등 조미료 구매와 간편식 매출 역시 전년 대비 각각 221%, 84% 늘었다.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4050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와 함께 간편식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소니 '엑스페리아XZ3' 출시

소니코리아가 스마트폰 '엑스페리아XZ3'(사진)를 10일 국내 정식 출시했다. 출고가는 89만1000원. 소니스토어와 SK텔레콤 티월드 다이렉트, KT샵, 유플러스샵, G마켓, 옥션 등 온라인몰과 전국 주요 백화점 및 소니센터,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6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웰컴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를 달았다. 카메라와 오디오 등에도 소니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소니코리아는 제품 정식 출시를 기념해 31일까지 정품등록 이벤트를 벌인다. 행사 기간 제품을 구매한 뒤 11월7일까지 정품등록 및 사은품 신청을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 소니 엑스트라 베이스 블루투스 스피커 'SRS-XB41'과 투명 케이스를 준다. 김명근 기자



교육·퍼즐

에듀월

현직 주택관리사 인터뷰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여성 관리소장 주택관리사의 만족도? "상상 이상"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 각광받는 '주택관리사'. 정년 없음과 안정적인 장점 이외에도 여성이 하기에 좋은 자격증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에듀월 출신 여성 관리소장들의 만족도 역시 '상상 이상'이라는 평.

서울 방학 퍼스티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인 배은선 소장은 원래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던 경리 담당이었다. 관리소장과 관리직 직원들을 많이 접하면서 일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에 매력에 생겼다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고, 월급 밀릴 걱정이 없기 때문이죠" 배 소장은 육아를 병행하면서 맞벌이로 할 수 있는 일 중 주택관리사가 최고라고 말한다.

주택관리사의 가장 좋은 점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 의정부 일스트루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인 유미자 소장은 "보통 70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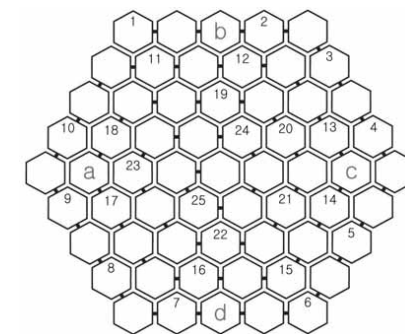
직업이잖아요. 60세가 넘어서도 취업이 가능해요. 남자들은 기사 생활

부터 시작하시고, 여자분들은 경리업무를 시작으로 실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라며 "일단 자격증만 따시면 길은 다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유미자 소장 또한 에듀월에서 공부하면서 선배 덕을 토틈 봤다. "주택관리사 취업에는 인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배들을 통해 취업 정보도 얻고, 실습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 소장은 취업 이후에도 실무에서 생겨나는 각종 어려움들을 에듀월 주택관리사 동문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 낱말문제



01. 사람이 건드리면 흔들리는, 산에 자연적으로 서 있는 큰 바위. 02. 걸 으르르 진실하고 착한 체하는 사람. 03. 자기 집에서 사용함. 또는 그 물건. 04.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 05. 여물지 아니한 박의 속을 파내어 길게 오려서 말린 반찬거리. 06. 낱말의 짝. 또는 부서진 짝의 부스러기. 07. 이미 결혼을 한 사람.

08. 말 탄 사람이 스스로 고삐를 잡고 뿔. '오경이' 09. 말을 기르는 곳. 10.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 "오담오조" 11. 향해나 등산 때위를 하는 도중에 재난을 만난 사람. 12. 남을 몰래 찔러 죽이는 사람과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뜻. "오객간오" 13.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14. 적의 행편이나 지형 때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 15. 앓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일. 16. 산소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이 완전히 타는 일. "오전오소" 17. 바다에 부של한 기뢰 따위의 위험물을 치워 없애는 데에 쓰는 배. 18. 매무시를 바로 하고 단정하게 앉음. "오금오좌" 19.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20. 저승의 입구에 있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 b, c, d를 이어붙이면 여러분이 찾아서 쓰는 곳이 됩니다.

